

기업입주 100% 조기 달성 목표 적극 투자유치

전북도-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공조 구축

김제시가 김제자유무역지역 기업입주 100%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먼저 유관기관인 전북도,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긴밀한 공조를 구축하고 타깃기업 발굴과 유치 유력기업 합동출장으로 기업이 실제투자가 이어지도록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제 산업발전엔 있어 자유무역지역이 갖는 의미

김제자유무역지역은 2009년 1월 농업 중심이었던 김제시가 산업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치밀한 전략과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타시도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각고의 노력으로 유치한 특별 산업단지다.

자유무역지역 유치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망을 가진 다국적기업 입주로 새로운 첨단기술 이전과 선진 경영 노하우 전파가 가능하여 국내기업 생산성 제고는 물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동시 조성한 지평선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어 당시 지정의 의미가 매우 컸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2010년 착공을 시작으로 5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5년 완공하여 총 30개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출기업이 가동중에 있으며 350여명(2020년 1월 기준)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주요기업으로는 (주)구보더, (주)CEF, (주)기셈, (주)알록스 등 22개사가 자가부지에, (주)소리소, (주)MDM 메탈츠, (주)전조기술연구원 등 8개사가 표준공장에 입주해 있다.

▲김제자유무역지역 투자기차와 투자잠재력

자유무역지역은 김제시가 새만금과 연계한 동북아 경제중심 허브로의 부상이라는 큰 구상을 가지고 국내외 우수 외투기업 및 해외 수출기업을 중점 유치하여 새만금 배후도시 김제에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를 건설하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특히, 동북아 한중일 트라이앵글(삼각구조)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가진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인근 군산항은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과는 20분 소요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중국과 수출 물류에 있어 최상의 조건을 자랑한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2024년 완공), 호남KTX 고속철도, 새만금신공항(2028년 완공) 등 뛰어난 육로와 항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최상의 산업집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전주, 군산, 익산 인접으로 인력공급 여건도 매우

좋아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에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다.

투자여건에서도 수입물품 관세 면제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은 물론 법인세·소득세 50%감면, 취득세·재산세 75%감면 등 김제자유무역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강력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김제자유무역지역은 김제시와 전북도가 제공하는 각종 투자보조금은 물론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또한 큰 투자 메리트로 최근 2020년 3월에는 김제지평선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되어 타시군 산업단지 대비 월등한 보조금 혜택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30개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기업들이 가동 중
350여명 고용창출 효과
그린바이오팜 등과 협약 등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
호원정공 등 3개 업체
자유무역지역 투자 '관심'

▲현재 자유무역지역 투자현황과 기업유치 도전과제

2015년 완공 이후로 김제지평선산업단지는 5년간 김제시의 부단한 기업유치 노력으로 현재 88.7%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반산업용지와 자유무역지역을 구분 용지별 분석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56.4% 입주율로 일반산업용지 입주율 88.0%에 비해 분양이 조금 더딘 실정으로 자유무역지역 조기분양 완료는 목표로 한 기업유치가 시급한 과제다.

그간 국내외 투자에 부정적인 경제상황 지속이 기업에 전반적인 투자의욕 저하로 까지 이어져 김제지역 또한 지평선산업단지나 자유무역지역에 투자의향 기업이 감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경



투자유치활동

소하는 등 한동안 실제 기업유치에 있어 큰 애로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기업유치 호기(好期) 포착, 투자유치전력

그러나 김제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마인드로 경기침체 현시점을 김제 산업의 성장확충을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기업유치 활동에 임했다. 투자기업을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먼저 찾아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윈윈 투자설명회와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하는 등 기업의 실제투자 유도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김제시는 지난해 10월까지 기업유치에 있어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적극적인 투자기업 발굴과 유치 활동으로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주)그린바이오팜 투자협약(MOU)과 지난 1월 (주)알록스 투자협약(MOU) 등 외국인투자기업 2개사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먼저 첫 물꼬를 튼 (주)그린바이오팜은 위생용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작년 11월 자유무역지역 내 부지면적 1만 6,498㎡, 투자액 60억원 규모로 투자협약

(MOU)을 체결했다. 현재 지난 2월 입주계약을 마치고 오는 5월중 공장을 완공해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주)그린바이오팜은 내년 2021년에는 현 입주부지 바로 인근 1만6,078㎡ 부지에 투자액 350억원을 들여 공장등을 증설하려는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 지역인력 200여명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이다.

이어 투자한 (주)알록스는 자유무역지역 완공 당시부터 자리잡은 자동차 알루미늄휠 제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국내의 굴지 자동차사 볼보, 현대, 기아 등에 국내 납품과 수출을 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미국 유명 자동차사와의 수출계약 물량 급증에 따라 지난 1월 3,300㎡ 규모의 공장등을 증설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알록스 역시 금번 투자에 그치지 않고 2023년까지 단계별로 인근 부지에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어 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알록스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투자유치 성과 탄력, 향후 투자유치전개 계획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만이 제공 가능한 탁월한 투자기차와 매력으로 잠재적 투자기업들의 투자 관련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투자의향을 보인 기업들 가운데서도 특히 (주)호원정공, (주)석경에이티, KNM 등 투자가 유력한 3개 업체가 김제자유무역지역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는 먼저 이 외투기업 3개사를 집중 유치기업 리스트로 정하고 그 중 가장 투자가 유력한 특장차 제조업체 (주)호원정공을 찾아 3개기관 합동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기업이 당면한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현재는 최종 투자를 결정하고 이르면 4월 중순에 투자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 전기·전자 나노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주)석경에이티도 자유무역지역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시는 유관기관과 직접 출장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 제시하는 등 기업이 실제 투자토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자동차를 생산 중국 외투기업 KNM은 김제시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가장 공을 들여 유치하려는 기업으로 현재 자유무역지역 내 6만6,000㎡ 부지규모의 투자 계획이 있어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이르면 5~6월경 중국 본사를 직접 찾아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 투자의향 기업을 잠재적 유망 투자기업 리스트로 집중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외 우수 외투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자유무역지역 100% 분양 조기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요, IKSAN!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